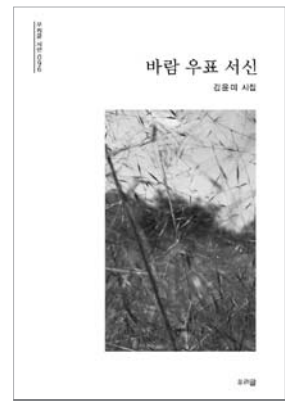


고통 속에서 건진 자기 고백의 전언



바람 우표 서신

‘예감만 당도할 뿐 보이지 않으니/ 오늘도 구름에게 바람 우표 붙여 안부/전합니다/잘 지내고 있나요?’(‘바람 우표 서신’ 중)

김윤미 시인의 첫 시집 ‘바람 우표

사랑에 대한 감정 담은 김윤미 시인 첫 시집 자기감정에 충실한 언어들로 조우한 결과물

서신’이 발간됐다.

사랑에 관한 감정을 절망과 눈물, 연민과 희망의 언어로 육화시킨 60편의 시가 실린 이번 시집은 상처로 가득한 사랑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 그 대상은 아버지나 자식 같은 가족이 되기도 하고, 사람과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처와 통증이 되기도 한다.

시인은 자신과 세계 사이에 거리를 절망적인 언어로 그려냈는데, 사랑에 가담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지만 결코 아름답거나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인의 첫 시집은 자기감정에 충실한 언어들과 조우한 결과물로, 자신이 지나온 시간을 시로 쏟아내고 있다. 시집 ‘바람 우표 서신’은 힘겹게 빠져나오고자 하는 자기 고백의 진솔한 전언으로 채워져 있지만 새로운 삶과 사랑 역시 그 속에서 치유되고 발견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시인은 ‘기억의 새장 속에 갇혀 사는 사람’(취생몽사-영화 ‘동사서독’)처럼 살았고, ‘바람 매서운 시간’(‘빛소리’)을 숙절없이 보내는 삶을 살았다. 시인에게 사랑은 자신을 성찰

하는 과정이었으며 금기의 자리에 고여 있던 슬픔과도 같다. ‘몇 날 며칠 토해내듯 목 놓아’(‘마음 몸살’) 울어본 사람이라면 사랑과 삶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공감할 수 있다.

눈에 띄는 대목으로는 죽음 앞에 당도한 아버지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긴 ‘누워 있는 창 너머에서/사이렌이 또 울린다/ 생애 딱 한 번 요란하게 울린 아버지/미동도 않고 거친 숨 몰아쉬고 있다’(‘사이렌’)를 꼽을 수 있다. 시인은 아버지의 삶을 통해 현재의 시간을 성찰하며, 고통에만 머물지 않고 현재의 삶과 시간, 세계를 투사시킴으로써 새롭게 거듭나고자 한다.

김석준 평론가는 해설을 통해 시인은 ‘첫’의 애절하고 송고한 감정을 차근차근 정화 승화시켜가고 있다. 자기

에게 충실한 감정의 언어와 대면하며, 자기에게 봉헌하는 문자의 제의를 펼쳐내고 있다”며 그의 시 세계를 설명했다.

가담고 싶으나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사랑의 지대에 우리는 놓여 있다. 사랑은 아픔을 양산하는 게 아닌 더 나은 삶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끊임없이 이 고통을 끌어내려 하면서도 또 새로움을 찾고자 하는 그의 시야 말로 보편적인 우리네 삶이고 몸부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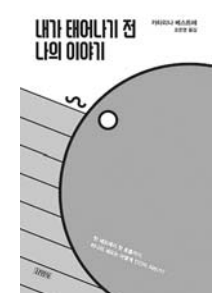
한편, 김윤미 시인은 광주대 문예창작과를 졸업, 지난해 여름 계간문예지 ‘미래시학’에서 시 ‘소생의 시간’ 등으로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우리글. 128쪽. 9,500원. /이보람 기자

세책 나왔어요



◇코딩하는 소녀=방학 때 코딩 캠프에 참가한 엘리는 나랑 딱 맞는 친구를 찾아 주는 앱 ‘클릭드’를 만들어 개학 날 학교에서 엄청난 돌풍을 일으킨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사생활 유출이라는 무시무시한 후폭풍이 밀어닥친다. 라임. 240쪽. 9,800원.



◇내가 태어나기 전 나의 이야기=임신·출산 대백과에는 나오지 않는 인간 탄생의 경이로운 과정을 단순하면서도 정확한 그림과 함께 생물학적으로 쉽게 풀어냈다. 김영사. 192쪽. 1만2,800원.



◇명화로 보는 단테의 신곡=19세기 중반의 가장 저명한 프랑스 삽화가 ‘구스타브 도레’와 신비주의 화풍을 추구했던 ‘윌리엄 블레이크’ 등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글의 흐름에 맞게 수록했다. 미래타임즈. 506쪽. 1만9,800원.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가루 이야기=밀가루와 설탕에서부터 황사, 가루약에 이르기까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17가지 다양한 가루가 등장한다. 마음이음. 116쪽. 1만2,000원.



◇오늘도 사소한 일 에회를냈습니다=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는 이유는 자신보다 주변을 먼저 신경 쓰고, 모든 일을 잘 해내려고 노력하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이 책은 부정적 감정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상상출판. 256쪽. 1만4,000원. /이보람 기자

다문화 더하기 더 나은 세상

‘다문화 전래동화책’ 출간 한국·중국 2중 언어 출판



공작새 공주

가들의 재능기부로 2중 언어로 출판했다.

재능기부에는 다양한 색채감과 함께 흥미로운 그림을 그린 선숙향 삽화 작가와 김명화(동강대 겸임교수)·이미경(광주경양초 교사)·결혼이주여성 장춘화(중국 결혼이주여성) 씨가 번역가로 참여했다.

이미경 교사는 “우리나라 전래동화인 줄 알았던 동화들이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에 유사한 이야기들이 있어 서로 이질 된 문화가 아닌 상호 유사한 문화적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며 “다문화 동화책을 통해 여러 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각각의 마음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듯 자기표현의 방식으로 이해하면서 세상을 이해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공작새 공주’는 전자책으로도 발행돼 온라인 서점을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편, 광주지역민의 1.4%인 2만

중국 운남성 시쌍반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따뜻하며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였어요. 시쌍반나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씨 곱고 아름다웠어요. 이 나라에 문무가 뛰어난 왕자가 살았어요. 온 마을 여인들은 왕자를 모두 사랑했지요. 하지만 왕자는 그 누구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中国云南省西双版纳四季如春, 美女如云. 在这美丽的西双版纳有位王子英俊潇洒, 聪明强悍, 喜欢他的女孩子多得数也数不清, 可他却还没找到自己的心上人.



1,279명의 외국인이 광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정은 차별과 소외감, 언어적 문제, 또래 관계 형성 등 다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색종이도서관은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아동의 다문화인식개선, 언어교재 등의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동화책을 출판하고 이를 이용한 문화 간 갈등 예방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보람 기자

일본 추리소설의 흐름과 경향 한국 문학과와의 관계 등 이해

일본 추리소설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 ‘세 가닥의 머리카락’은 1880년대 후반 일본에 처음 서양 추리소설이 유입되었을 당시에서부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의 주요 추리소설을 엄선해 연대순으로 기획한 것이다.

이 시리즈를 통해 일본 추리소설의 흐름과 경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 시리즈는 최대한 한국에서 소개되지 않은 작품들로 구성했으며, 번역역시 가독성에 중점을 뒀 오래된 작품은 요즘 표현에 맞게 재번역했다.

타이틀 제목인 ‘세 가닥의 머리카락’은 서구 문학을 모방해 이를 끊임없이 변용시켜가면서 일본적인 것으로 만들어간 일본 근대문학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상미디어. 344쪽. 1만3,000원. /이보람 기자



전원주택, 부지 급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번지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전원주택 허가 취득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010-2680-9685

덕남동 임야 1~2년내 대박납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공유지분, 3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5100만원(일시불조정가)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문의. 010-6834-7400